

강원 아너소사이어티를 만나다

# 지역인재 육성 위해 꾸준히 지원 아이들의 꿈 심어주는 '희망천사'

## 조창진 SG건설 회장

조창진(63·G1 강원민방회장) SG건설 회장은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인 강원 아너소사이어티 제42호 회원이다.

지난해 5월 강원도 42호, 원주 11호, 전국 1,148호 아너로 가입했다.

고향인 횡성을 비롯해 원주 등지에서 폭넓은 사업을 펼치며 2005년부터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후에는 해마다 2,000만원의 기부를 해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 회장은 “원주 한마음청소년장학재단과 (재)횡성인재육성장학회, 강원경찰장학회 등에 이사장직을 맡아 지역의 인재 육성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내 고향, 우리 고장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



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의 많은 분들

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숨은 인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좋은 일은 함께할수록 배가 되는 만큼 그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이런 나눔 활동을 통해 지원을 받은 청년들이 다시 지역을 발전시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공동모금회가 사회지도자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눔에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2007년 12월 설립됐다. 1회에 1억원 이상 기부하거나 5년간 1억원 기부를 약정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최영재기자 yj5000@kwnews.co.kr

## “건설산업 투자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어려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는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권수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할 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그러나 타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월등히 높은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우 소극적인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설산업은 저소득·서민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방제시설 확충 △상승 정체도로 정비 △긴급도로 확보 및 골목도로 정비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문화예술 복합타운 조성 △도심 시민휴식공원 조성 △스프링노인 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밀착형 SOC 건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건설산업의 일감 부족과 함께 지역 건설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적정 공사비 미확보 문제를 꼽았다.

그는 “공사비가 삭감돼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면서 “여기에 계약 불이행 시 입찰 및 계약 보증금 귀속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향후 입찰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



상승정체·골목도로 정비 등 SOC건설투자 지속적 확대

지역사 적정공사비 확보위해 계약심사제도 폐지 등 필요

에도 적정 이윤을 주지 못하게 돼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해결책으로 △인위적인 예정가격 삭감 금지 △계약심사제도 폐지 △공사비 이외의 신청제도 도입 △공사비 부족에 따른 공사 포기 시 부정당제재 면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기계설비, 소방 등 전문 업종의 분리발주 지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폐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표준시장단가 제도의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공사 적용 제외 등 건설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 현안 사업이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 핵심공약 대부분을 반영했다. 채택된 사업들은 △원도심 재생 뉴

딜정책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이 있다. 또한 영호남 상생 사업으로는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이 있다.

이 회장은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4조8987억원)과 광주~나주 혁신도시 간 광역철도망 구축사업(27.6km, 1조3874억원) 등도 포함돼 있는데, 광주~대구 철도건설은 동서화합 차원에서 동해와 서해를 잇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물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에서 제외된 KTX 운행을 위한 경전선(광주~순천) 진철화 사업(2조304억원)과 광주송정역사 건립사업(7882억원), 광주 제3순환도로 4·5구간 건설사업(4841억원)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지역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10년간 대신공약 이행률이 10%대에 불과했다”면서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대상 사업(2016~2020년)도 부산시가 5개 사업에 1조2200억원, 대구시는 3개 사업에 4300억원이 반영된 반면, 광주시는 고작 2개 사업 1700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동안 SOC 투자에서 소외돼 왔다”고 이전 정부정책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지역에 대한 SOC 투자 확대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부미기자 boomi@